

2020 전주시의회 회보 제24호

<mark>시민을 행복</mark>하게 하는

# 전주시의회



www.council.jeonju.go.kr





####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 전주시의회 2020

## 전주시의회 회보 **제24호**

#### 발간등록번호

**발행인** 전주시의회 의장 박병술

**발행처** 전주시의회\_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편집인** 전주시의회 사무국

Tel. 063.230.3730 Fax.063.230.3657

**디자인/인쇄** 두인기획

www.council.jeonju.go.kr





## **Contents**



04 발간사 전주시의회 의장 박병술

05 축 사 전주시장 김승수

06 History 전주시의회 연혁

07 전주시의회 구성 제11대 전반기

08 전주시의회의원총람 제11대 전반기

10 의정활동 성과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6 건의안/성명서

30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37 의원연구단체활동 의정포럼연구회 / 생태교통연구회 /

시정연구회 / 조례연구회 / 미래세대연구회

**42** 2019 의원 의정활동 5분 자유발언 / 의정활동 / 시정질문







74 지방의회체험교실 어린이의회

75 시의회NEWS 전주시의회, 청렴다짐교육 수료

76 전주풍경 전주도시재생 / 시민의 삶,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학교놀이터와 생태놀이터

82 회기운영계획 2020년 회기운영 계획

83 편집후기 편집을 마치며

## 66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민의(民意)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 99



본격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어 가고, 지방의회의 역할 과 사명에 대한 기대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의 활동과 비전을 담은 〈제 24호 의회보〉의 발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11대 의회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의회'를 목표로 달려온 지 일 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전주시의회는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민의(民意)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의 정체성 회 복과 갈등 해소에 적극 개입하며 정치적 동행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 였습니다.

지역정치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시민을 위한 열린 소통의 장이기에, 민생 조례 발의에 힘쓰며 지역의 민주주의와 의정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제 11대 의회의 전성기라 할 만큼 열렬한 의정활 동과 비전의 구현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정한 국가발전의 동력은 지방자치로부터 나옵니다.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숙한 지방분권을 이루어내는 데 온 힘을 다해 진 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도 하시는 모든 일에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0. 1. 전주시의회의장 **박 병 술**

## 전주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자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99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그리고 전주시의회 의원님 <mark>안녕하십니까?</mark> 2019년 한 해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담은 전주시 의회보 제24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2019년이었습니다. 새해 전주는 특례시 지정이라는 담대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아주 낮은 가능성으로 시작했지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시민 여러분 덕분에 전주 특례시 지정 당위성은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중 하나인 동산동의 명칭을 여의동으로 바꾸고,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을 125년 만에 전주에 안장하며 역사 앞에 당당한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2016년에 이어 2회 연속 지역문화 종합지수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문화수도의 위상을 재확인했으며, 2019 국제슬로시티 어워드에서 최고상인 오렌지 달팽이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제 드론산업 박람회 개최, FAI 월드 드론 마스터즈 국제대회 개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도시 선정, 대한민국 실패박람회 개최 등 다방면에서 존재감 있는 도시로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행정의 노력만이 아닌, 의원님들의 든든한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행정을 견제하는 감시기관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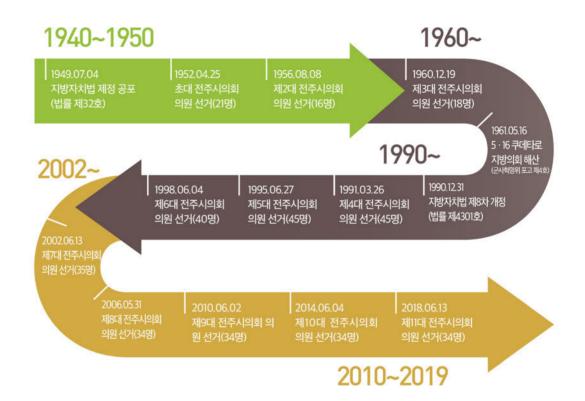
도시는 시민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도시가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 시민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도 전주는 사람과 생태, 문화, 따뜻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세계적인 도시를 향해 시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가겠습니다. 전주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자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2020년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주시의회보 제24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전주시의회의 무 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0. 1. 전주시장 **김 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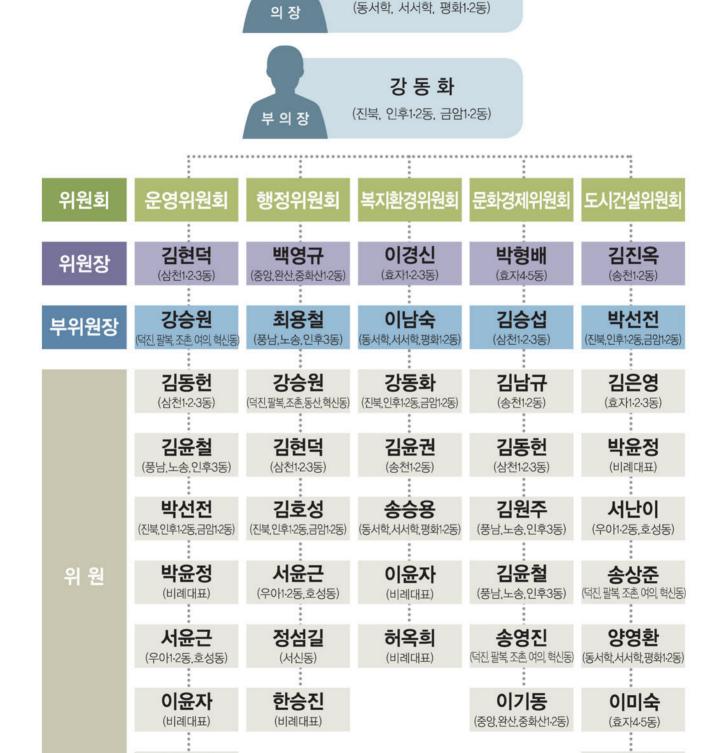
전주시의회 연혁 전주시의회 회보 제24호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97조에 의거 1949년 7월 4일 공포된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이 같은 해 12월 15일자로 개정되어 1950년 12월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950년 6 · 25동란으로 인하여 지연되어오다가 1952년 4월 25일 초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전주시의회가 구성되었다.





**허옥희** (비례대표)



박 병 술

최명철



제 11대 전주시의회 의원



의장 **박병술**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부의장 **강동화** (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백영규** (중앙, 완산, 중화산1-2동)



**이기동** (중앙, 완산, 중화산1.2동)



**송승용**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양영환**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이남숙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김원주** (풍남, 노송, 인후3동)



**김윤철** (풍남, 노송, 인후3동)



**최용철** (풍남, 노송, 인후3동)



정섬길



최명철 (서신동)



박형배 (효자4.5동)



이미숙 (효자4.5동)





김은영 (효자1-2-3동)



이경신 (효자1-2-3동)



김동헌 (삼천1-2-3동)



김승섭 (삼천1-2-3동)



김현덕 (삼천1-2-3동)



김남규 (송천1·2동)



김윤권 (송천1:2동)



김진옥 (송천1·2동)



**강승원** (덕진 팔목 조촌, 여의, 혁신동)



**송상준** (덕진, 팔복, 조촌, 여의, 혁신동)



**송영진** (덕진 팔복, 조촌, 여의, 혁신동)



**김호성** (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박선전** (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서난이** (우아1.2동, 호성동)



**서윤근** (우아1.2동, 호성동)



**박윤정** 



이윤자



한승진 (비례대표)



허옥희 (비례대표)

전주시의회 회보 제24호





#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 기틀 다져

전주시의회는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전주시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2019년 한 해도 쉼 없이 달려왔다. 지난 1년간 전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전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간추려 본다.

#### 민생 조례 등 257건 처리

전주시의회는 올 한 해 동안 정례회(2회)와 임시회(8회) 등 10차례의 회의를 열어 조례안 113건, 동의 안 101건, 결의안 3건 등 총 25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72건으로 범죄예방 활동 지원,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 다양한 조례를 직접 발의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시의회는 1월 정부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기습 변경 고시하여 서민 에너지빈곤층이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을 〈19.6% 대폭 인상에 대하여〉 「연 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가 뜩이나 어려운 에너지빈곤층의 현실을 감안하 여 정부에 현 연탄가격 인상 정책을 철회하고. 저소득층의 맞춤형 에너지 복지정책 및 자활정 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또 단순 인구수만으 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재 정규모.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 시 재검토 되어야함에 따라 낙후되고 광역시 없 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진정한 재정분권을 위해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 육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였다. 또 지난 6월에는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법안 철회 촉구!」 는 성명서를 통해 한농대 분교법안과 농림축산 식품부의 한농대 분교 검토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는 점에서 66만 전주시민의 이름으로 한농대 개 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성명서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 시정 현안에 시민 목소리 대변

의원들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정책, 보편적 복지정책, 문화·예술정책, 출생정책, 공공임대주택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시정질문(12건)과 5분 자유발언(81건)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은 물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집행부 견제 · 감시 역할 충실

시의회는 또 지난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에도 충실했 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각종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예산집행과정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추진결과 등을 점검했다. 특히,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 실시를 위해 시정의 위법·부당 행위, 예산낭비 사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 등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 제보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기도 했다

#### 의원 연구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시의회는 조례연구회, 의정포럼연구회, 생태 교통연구회, 시정연구회, 미래세대연구회 등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과 다양한 사회 문제와 관련한 각종 토론회, 강연 회, 간담회 등을 20여 차례 실시하여 의원들의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힘써오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 독립적인 인권센터 체제정비, 경로당 운 영 활성화 방안, 전주실내체육관 공간조성, 1 인가구 안전강화 지원. 청년 커뮤니티 주거복 합단지 조성, 청년 장애인 · 일반 쉐어하우스, 선진화된 조례 입안 프로세스 정립 등 입법 연 구활동과 관련한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여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 안을 모색하고 있다.

#### 시민 소통 강화

시의회는 또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정책자문 단, 산학협력 현장실습, 의원 홈페이지 동민과의 대화 등을 운영하여 역동적인 소통 의정을 펼쳐왔다. 이 외에도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운영, 본회의 생중계 및 방청 등을 통해 의회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정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전주시의회 회보 제24호

위원장 김현덕

부위원장강승원

위원 김동헌, 김윤철, 박선전, 박윤정, 서윤근, 이윤자, 허옥회



생산적인 의정활동 환경 조성 원활한 의회 운영 주력 의회운영위원회(김현덕, 강승원, 김동헌, 김윤철, 박선전, 박윤정, 서윤근, 이윤자, 허옥희 의원)는 의회의 전반적 업무를 관장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하는 의회를만들기 위해 의원들의 역량강화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왔다. 아울러 내실











- **1,2** 2019 전주시의회 연찬회 개최 **3** 전주시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 4,5 수원시의회,전주시의회정기교류친선축구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통해 시민이 감동하는 의정활동과 청렴하고 바른 의회상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올해 조례 제·개정안, 건의안 등 총1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을 통해 동음이의어가 한 문장에 혼용되어 이해하기 어렵고 일본식 표기 등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회의규칙의 용어와 문장 표현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일부개정으로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정부 권고안보다 더 강화했다.



## 행정위원회





위원장 백영규

부위원장최용철

위원 강승원, 김현덕, 김호성, 서윤근, 정섬길, 한승진



시민의 편에서 불합리한 행정 개선 집행부감시 · 견제역할충실 행정위원회(백영규, 최용철, 강승원, 김현덕, 김호성, 서윤 근, 정섬길, 한승진 의원)는 전주시정의 홍보와 예산, 인사, 감사, 조직관리 및 공유재산관리 등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 당하고 있는 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기 획조정국·완산도서관·덕진도서관·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특히 시민을 위한 정책 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집행을 감시·견제하고, 건전 재정 과 투명한 집행 절차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며 민의(民意) 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또





1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활동 2,4 전주풍남학사 운영상황 점검 및 건의사항 청취 3 중화산도서관 건립 추진상황 현장 점검









5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 및 인라인롤러경기장 현장활동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위해 김치기공유통종합센터 신축부지 방문

한 위원회는 제356회 임시회부터 제365회 정 례회까지 10차례 회의에서 조례안 32건, 동의 안 20건 등 총 52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주요 처리 안건에는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위원회는 또 전주풍남학사, 김치가공유통종합

센터 신축부지, 국민체육센터 사업예정지, 시설현대화 및 공간 확충 예정지, 전주승화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중인 서학동예술마을, 중화산도서관 건립현장,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현장 등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해사업 추진 상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의정활동을 펼쳤다.



##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 강동화, 김윤권, 송승용, 이윤자, 허옥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주력 복지취약계층 자립촉진 복지환경위원회(이경신, 이남숙, 강동화, 김윤권, 송승용, 이윤자, 허옥희 의원)는 66만 시민에게 생산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뤄질수 있도록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환경보전에 쟁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환경국·전주시보건소·맑은물사업본부·동물원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복지수요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전주시민의 삶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시책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집행부를 견제 · 감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뜻을 수렴하기 위한 다각적인 소





1 전주승화원 및 삼천차고지 찾아운영상황 등 현징활동 2 전주 동물원 코끼리 사육시설 및 LID 조성사업 현징활동 3 덕진보건소 신축현장 점검









4,6 전주권 소각지원센터 및 지원순환특회단지 운영상황 점검 5 전주승화원 및 삼천차고지 찾아 운영상황 등 현장활동

통의 채널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 한 해 10차례 회의를 열어 조례안 31 건, 동의안 26건 등 총 57건의 안건을 다뤘다. 그동 안 처리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전주시 지역이동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등의 제·개정을 통해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

하고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제·개정으로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또 전주동물원, 덕진보건소 신축현장, 삼천차고지, 자원순환특화단지, 기린보호 작업장,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시책사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형배

부위원장김승섭

위원 김남규, 김동헌, 김원주, 김윤철, 송영진, 이기동



전통문화 및 탄소산업도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문화경제위원회(박형배, 김승섭, 김남규, 김동헌, 김원주, 김윤철, 송영진, 이기동 의원)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 및 예술 창달,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 정보화사회 구현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관광체육국·신성장산업본부·농업기술센터·예술단운영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세계적인 전통문화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전주의 명성을 드높이고 전통과 미래가 조화되는 잘 사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





- 1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사업추진 상황점검
- 2 2019서울국제레저스포츠산업전 참석 전국드론축구대회 참관
- 3전주부성성벽발굴현장









- 4 한옥마을 내문화시설 찾아운영상황 등점검
- 5 팔복예술공장 야호예술놀이터 운영계획 청취 등 현장활동
- 6 풍패지관 서익헌 해체보수 공사 현장점검

출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위원회는 올 한 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22 건, 동의안 34건 등 총 5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주시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등을 제·개정해 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관광산업의

육성 발전과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현장, 전주 배드민턴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밀양시 벤치마킹, 풍패지관 서익헌 해체보수 공사현장, 전주 한옥마을내 문화시설 시찰점검, 팔복예술공장 내 야호 예술놀이터 운영계획을 청취했으며,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일자리확대 및 중소기업 육성 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박선전

위원 김은영, 박윤정, 서난이, 송상준, 양영환, 이미숙, 최명철



##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 구현

도시건설위원회(김진옥, 박선전, 김은영, 박윤정, 서난이, 송상준, 양영환, 이미숙, 최명철 의원)는 시민안전담당관·생태도시국·사회적경제지원단·시민교통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며 전주시를 쾌적하고 안정된 도시와 친환경적인 녹색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건설 행정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위원회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원도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여 친환경녹색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위원회는 제356회 임시회부터 제365회 정례회까지 10차





- 4 금학천 지방하천정비사업 현장 점검
- 5 「성평등전주」운영계획 청취 및 점검
- 6 덕진구 금암 분수정원 조성사업 현장 점검









3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주요 안 건을 살펴보면,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 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 례」,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 「전주 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 례」,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 「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례 회의에서 조례안 24건, 동의안 14건 등 총 등이 있다. 위원회는 전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 업지, 어린이 교통공원,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 설 설치사업 현장, 한옥마을 대성공영주차장, 금암광장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사업 및 금학천 지방하천정비사업 현장, 재건축 정비사업 예 정지, 전주교도소 신축 이전사업지 등을 방문 하여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현장을 찾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규

부위원장김동헌

위원 서윤근, 강승원, 최용철, 이남숙, 이윤자, 송승용, 이기동, 박선전, 김은영, 양영환, 최명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 방향 제시 재정 효율성 극대화 주력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남규, 김동현, 서윤근, 강승원, 최용철, 이남숙, 이윤자, 송승용, 이기동, 박선전, 김은영, 양영환, 최명철 의원)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투명하게 심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주시 전반의 예산안과 결산의 종합적인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집행부의 경제활동에 있어 재정의 역할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기능을 한층 더 전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예산안과 결산승인 안 심사를 앞두고 두 차례의 연찬회를 통해 이 론과 실무를 겸비한 심사능력을 향상시켰다.

위원회는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법적·의무적 미부담 경비 등으로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단순 삭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불요한 예산을 지

역경제 활성화와 맞춤형 복치체계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에서는 예산의 반복적인 이월과 과다한 불용 등 비효율적 예산집행 사례를 시정・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주

부위원장 정선길

위원 김호성, 한승진, 김윤권, 허옥희, 김승섭, 김윤철, 송영진, 이미숙, 박윤정, 서난이, 송상준



시민의 편에서 시정 전반 감사 불합리한행정체계개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원주, 정섬길, 김호성, 한승 진, 김윤권, 허옥희, 김승섭, 김윤철, 송영진, 이미숙, 박윤 정, 서난이, 송상준 의원)는 지난 10월 21일 제364회 임시 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선출·구성하였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 예산집행과정 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주 2019. 11. 19(화) ~ 11. 27(수) (9일간)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요시책들에 대한 추진결과 등을 점검했으며,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전주시의 기금재원이 불필요한 선심 성 사업에 투입되거나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또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 투명성 ·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정기준과 평가항목 정비를 요구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내용과 민원발생 여부 에 앞서 특위 위원 간 자료 분석 및 활동에 대 한 의견 조율을 위한 논의를 하는 등 행정사 무감사를 위해 노력했다.

# 건의안 성명서

#### 건의안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건의!

전통의 맛과 멋의 고장인 전주와 전라북도가 글로벌 관광지로 성장하기 위해서 공항은 필수요소임, 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건설이 매우 시급하여 이를 촉구 건의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을 반드시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018년 12월 19일 제3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건의 안을 채택하고 지난 9월 2019년 정부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전주시민를 비롯한 200만 전라북도민이 큰 상실감에 빠졌다. 특히 2023년 세계잼버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예산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이유로 25억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공항건설을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추진할 경우 2026년에나 개항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지 않으면 2023년 개항이 불투명한 상 황에 놓이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 사회적 상황대응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 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난 2005년 추 진되었던 전북권 공항 건설사업이 국토부에서 공사계약 및 보상까지 완료한 사안임을 고려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중단된 전북권 공항 건설사업의 재추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공항이 없는 곳은 전라북도가 유일하다. 제주노선에 한해 미군 공항을 빌려 쓰고 있는 실정이다. 하늘길이 막혀버린 전리북도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 하기도 어렵다. 세계적으로 한류가 유행이라는데 전통의 맛과 멋의 고장인 전주와 전라북도는 불리한 접근성으로 경 쟁력을 잃고 있다. 글로벌 관광지로 성장하기 위해서 공항은 필수요소이며, 이는 관광산업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가져올 것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7년 세계잼버리 대회를 유치하였다. 세계잼버리대회는 2023년 8월 새만 금 일원에서 169개국 5만여명이 참가해 열리는 행사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이다. 국제공항 건 설은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 홍보 때 정부가 국제연맹에 약속한 내용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구축 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사항이다.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회를 목표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 숙원사업 위주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 발전 기반구축사업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한 공공투자 확대 방안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광역 권 교통 · 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의 공공투자 프로젝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는 진정한 국기균형발전을 위한 시기적절한 선택이며, 고유한 멋과 전통이 있는 우리고장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 회를 빠르게 열어줄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새만금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첫 단추이자 정쟁의 대상 이 될 수 없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며, 전북경제권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구축사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주시민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적 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66만 전주시민을 포함하여 200만 전라북도 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 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8.12.19.









#### 건의안

## 연탄 가격인상 철회 촉구!

작년 11월 23일 엄동설한을 앞두고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를 기습 변경 고시하여 서 민 에너지빈곤층이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을 〈19.6% 대폭 인상하였음.〉

이에. 가뜩이나 어려운 에너지빈곤층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 현 연탄가격 인상 정책을 철회하고, 저소득층의 맞춤형 에너지 복지정책 및 자활정책 마련 등을 건의하고자 함.

시의회는 1월 17일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산업통산자원 부)는 작년 11월 23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기습 변경 고시하며 저소득 서민 에너지빈곤층이 사용하는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을 19.6% 대폭 인상하였다. 더불어 관련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인상배경을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에서 논 의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를 위해 추진한다는 배경을 밝혔다. 이는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 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하려면 석 · 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 연 탄사용가구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 단가를 인상해 주는 방식의 저소득층 직접 지원 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연탄가격 인상 배경을 공기업 부채규모 줄이기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실적 측면에서 단돈 100원이 금액적으로는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대부분 수입이 전혀 없거나 적은 빈곤층으로 소폭의 가격 인상에도 큰 부담을 안게 되어 그들의 겨울나기는 더 욱 힘들어질 것이다. 사실 정부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빈곤서민들의 연료인 연탄가격을 2016년 부터 3년간(2016년 14.6%, 2017년 16.6%, 2017년도, 상대적으로 유류세는 인하하는 이중적 정책을 펼치고 있 는 실정이다. 특히, 지속된 인상률로 인하여 공장도 가격 상승(534원→639원)과 함께 소비자 가격 역시 800원 대에 이르게 되어, 실제 극빈곤층인 저소득 서민들과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 내 산간벽지 등에는 배달료를 포함 해 900원이 넘을 수 있어, 가뜩이나 추운 겨울 에너지빈곤층의 굽은 몸은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정부에 지속적인 연탄가격 인상 정책기조에서 벗어난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친 서민 에너지 복지 방안 및 생활 안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더 이상의 사회 양극화와 빈곤의 고 착화라는 우려를 지을 수 없는 연탄가격 인상의 안일한 처방을 지양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말했다.

2019117

## 건의안 성명서 ···

#### 건의안

##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함.

낙후되고 광역시 없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진정한 재정분권을 위해 전북의 중추도 시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육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함.

시의회는 1월 25일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지난 10월, 정부에서는 "지방이 튼튼한 나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한 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을 불러일으킬 획기적인 자치단체 모델인 특례시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이라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지표만 제시하여 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다.

60년대에 전북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농업을 대표하는 지역이었지만, 정부의 경부축 중심 산업화 전략에 의해 철저히 외면받아 왔고, 현재까지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되지 못하여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시도를 단일단위로 추진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광역시가 있는 권역에 비해 중앙 지원 규모가 반(半)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역불균형은 우리 지역이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 정부정책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가 없고 낙후된 전북에 대해서 육성할 의무가 있으며, 그 출발점은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다.

전주시는 주민등록상 66만명이지만 실질적인 인구지표라 할 수 있는 생활인구는 100만명에 육박하고 1,00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아울러, 전주시는 전북의 생활기반시설과 주요 발전자원들이 집중되어 있고, 도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로 전주시가 진정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면 타·시군까지 확산되어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낙후되고 광역시 없는 전북의 발전과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전주시를 위해 정부가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지역 거점형 중추도시로 집중 육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19.1.25.







#### 성명서

##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법안 철회 촉구!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법안 을 대표 발의한 것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농대 이전 취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한농대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미래 리더 양성소로서 전북의 농업과 혁신 도시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마저 용역 발주를 통해 제2의 한농대 캠퍼스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목표를 무색케 하 고 있다.

이에 한농대 분교법안과 농림축산식품부의 한농대 분교 검토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66만 전주시민의 이름으로 한농대 개정법률 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의회는 6월 21일 제3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법안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최근 자유 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불과 4 년 전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농대 이전 취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발의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농대 분교를 경북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정치적 꼼수를 담은 법안 으로, 우리는 오늘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법안 철회를 엄중히 요구한다.

그동안 한농대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미래 리더를 양성해왔으며 지역균형발전과 국가농업경 쟁력 차원에서 지난 2015년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뒤 전북농업과 혁신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해왔 다. 한농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 등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은 전북을 차별화된 미래 농 생명산업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전북도민과 전주시민들은 이들 기관 이전에 어느 때보 다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경북출신 일부 의원들이 '멀티캠퍼스'라는 말로 포장한 한농대 분교를 위한 '한농대 개정법률 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 마저 오는 7월에 발주할 예정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한 국농수산대학 기능 및 역할 확대방안' 용역을 통해 제2의 캠퍼스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시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우리는 한농대 분교법안과 농림축산식품부의 한농대 분교 검토는 지역균 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2019621



2019.5.24.

전주시의회가 조례안 입안 및 심사와 결산검사에 대한 의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9 전주시의회 연찬회' 를 개최했다.



전주시의회가 공무국외 출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국외 출장을 심사하는 심사위원 전원을 2019.6.25.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인 등 민간위원으로 모두 위촉했다.



## 2019.7.11.

전주시의회가 올바른 공직문 화를 조성하고 조직 내 건전한 성 윤리의식을 정착하기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4대 폭 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2019.7.24.

시의회는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 강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일본 정부의 경제도발행위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 2019.8.9.

전주시의회가 일본 아베 정부의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경제침 략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전주시의회가 정책의회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자 의정 정책자문기구인 제4기 정책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4명의 신규위원을 위촉했다.

2019.9.4.



## 2019.9.9.

추석을 앞두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전주장애인정보교환센터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하늘나무복 지원을 찾아 라면과 화장지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2019.11.22

가나자와시의회 모리 의원과 월진회 초청 간담회



## 2019.11.13.

U-20 월드컵의 성공 개최로 우의를 다져온 전 주시의회와 수원시의회가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친선 축구 경기를 가졌다.



전주시의회 여성의원들이 전북경찰청 방문, 교통민원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2019.11.27.





## 의정포럼연구회



### 전주 현안 문제, 소통하고 연구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의정포럼 연구회(회 장 이경신의원)는 전주시 현안 문제에 대해 의원들 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연구의 장을 마련하고 이 를 전주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승화시 키고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최근 사람들에게 편리성이란 이유로 사용이 보편화된 플라스틱이 자연환경과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플라스틱의 역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국가적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지난해 8월 커피전문점 매장 내 플라스 틱 컵 사용을 규제하였고, 올 4월부터는 대규모 점 포 내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장례식장의 경우 일회용품 사용규제 예외대상으로

여전히 많은 양의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이 배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통해 의정포럼연구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연구회 회장인 이경신 의원은 "우리 후손들에게 쓰레기더미가 아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기 위 해서는 지금 현 세대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고쳐나가야 한다"며 "우선 일회용품을 다량 배출하는 우리의 장례문화에서부터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생태교통연구회



### 시민복리 위한 생태교통 활성화 방안 연구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생태교통연구회(회 장 김원주의원)는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환경 보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생태교통활성화 방안을 연 구하고 공유함으로써, 의회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방 안 및 정책 제안 마련 등의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연 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생태도시연구회는 지역 현안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매월 정례적 월례모임을 개최하여 연구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환경개선 등

을 위한 정책제언을 비롯하여 시민제안 발굴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생태교통연구

회는 새로운 대중교통 대안으로 떠오르는 트램에 대해 관심을 갖는 한해였다. 무가선 트램은 전기공급선 없이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는 열차로, 매연이 없고 소음이나 진동도 적다. 지면과 수평한 궤도를 달리기 때문에 버스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과 함께 도로를 쓸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태교통연구회 회장 김원주 의원은 균형 있는 도 시개발을 위해 도시의 혈맥과 같은 교통망의 최적화 를 강조했다. 특히 트램이 가진 장점인 전기에너지 를 이용하는 친환경성과 유모차, 휠체어 이용자 등 장애인, 노약자 등의 쉬운 접근성에 주목하며 트램 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짐했다.

2020년에도 생태교통연구회는 보행과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시정연구회



###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방향 제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시정연구회(회장 김승섭의원)는 연구활동 목표에 맞게 전주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및 실질적인 정책들의 문제 점을 인식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방식의 연구 활동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9년 새롭게 연구회 차원의 분과구성 및 분과별 집중 토의, 분과연구주제 발표 등 연구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활용 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는 지난 4월 8일에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회원 전원(15명)이 참석하여 의미있는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발제한 주요 내용은 독립적 인 인권센터 체제정비, 경로당운영 활성화방안, 시 민의 뜻에 따라 전주실내체육관 공간조성 등으로 공유된 의견을 공론화시키고 타 분과 회원들의 기 타 의견들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정책으로서 제 시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다양한 의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분야별 자료수집과 연구결과물을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활동들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조례연구회



### 시민행복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회장 이기동 의원)는 지난 2월 28일 행복조례제정을 위한 정책강연회를 갖고 전주시민의 행복 가치구현을 위한 행복정책의 제도화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자치법규 일제 정비 용역을 추진하여 전주시 자치법규 전반을 점검하는 연구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작년 말부터 공동연구주제로 선정했던 전주형 행복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제도적 기반의 목적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향후 조례 입안 방식의 적정성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여 전주시가 직접적인 시민행복의 가치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 영역에서 다양한 논의의 전기를 마련토록 하였다. 또한 올해 의회 정책용역에 공모하여 조례연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조례입안의 현실적 한계를 점검하고 순차적인 정비 체계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점검함으로써 향후 전주시에

선진화된 조례입안 시스템을 적극 제안토록 하는 연구 활동을 이어 갔다.

조례연구회 이기동 회장은 "조례입안은 곧 제도화이고 정책의 줄기이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례연구회가 올해도 그 위상을 잘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16명의 의원들과 함께 연구회 차원의 선진화된 조례입안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제11대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의 힘찬 노력의 성과를 알렸다.



## 미래세대연구회



### 미래세대 정책대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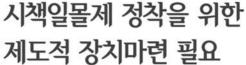
전주시의회 미래세대연구회(회장 서난이 의원)는 2019년 연구활동의 목표를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정 책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전주시의 청사진을 정책에 담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지난 8월 시흥시일원 청년활동 공간 견학을 통하여 청년공간의 의미,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선험 사례를 살펴보고향후 전주시 청년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연구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21일 전주시 청년 주거 정책 제안 공모를 기획 · 추진하고 시민의 다양한 청년주거정 책 아이디어를 통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 주거정책 착안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총 4팀의 정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주시 청년 주거 정책 발표회를 개최하여 1인가구 안전강화 지원 정책, 청년 커뮤니티 주거복합단지 조성 정책, 청년 장애인, 일반 쉐어하우스 정책 등 참신하고 현실 적용이 가능

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연구회 차원의 전주형 청년 주거정책안을 지속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다.

미래세대연구회 서난이 회장은 "다양한 시민들의 삶의 공간은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논의 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미래세대연구회에서는 계층 별 주거정책, 청년의 공간구상의 효율성 등을 지속 검토하고 토론하며, 보다 확장성 있는 시책개발을 위한 연구성과에 주력하고 11명의 회원들과 전주시 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정착시키고자 최선 을 다하겠다. "는 포부를 밝히며 향후 활동에 각오를 다졌다.







해야 하는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진정 필 요하고 중요한 사업들이 유야무야되는 게 현실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선심성 사업들이 결국 도시의 기반시설 관리 예산 등에서 빠져나가 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는 행정의 비효 율적인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 까 생각된다.

전주시는 시책일몰제를 추진하여 예산 사업뿐만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현실적 어려움 탓에 꼭 아니라 관행적인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많은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낭비성 시책은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소를 줄여가야 한다. 타 지자체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일몰제 를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개발 · 도 입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5분 자유발언

## 전주형 민간전문가 활용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행정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며 행정에서의 정책과 방향설정은 시민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 한 행위로 평가된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이를 인지 하고 민간전문가를 행정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토록 하 며 민 · 관 협치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중이며, 중앙부처 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전주 시 역시 팔복예술공장 총괄기획자와 천만그루 정원도 시 총괄조경가를 민간전문가로 선임했으나 활용의 정 도와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전주형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언한다. 첫째, 민간전문가 활용을 위한 운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우수한 민간전문 인력 영입 방안이 필요하다. 셋 째, 공무원 등 행정과의 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민간전문가 참여제도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



## 전주형 신중년(5060세대) 일자리 확충정책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5060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었던 연령층이자 현재도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세대이기도하다. 하지만 이 세대가 은퇴를 앞두거나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실업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세대라는 점에서 이들의 경제활동을 어떻게 유지하는지가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험과 경력이 우리에게 중요한 자산

이 된다는 인식의 변화와 이들 신중년들의 역할 강화 및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정부의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계획과 일자리 확충 정책의 적절한 분석,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며 도시재생사업 및 사회적경제분야 중 창업 및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을 확대·적용할 수 있는 공익형 정책사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야하다.

#### 5분자유발언

## 완산칠봉 옛 충무시설, 문화재생 공간으로 활용하자



방공호라 불리는 완산칠봉 충무시설은 전시상황을 대비해 군과 경찰, 전라북도 지휘소가 들어가서 지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땅굴(벙커)이다. 이 충무시설은 46년이된 터널형 건축물로 희소성이 높고, 지역적·장소적·환경적 특성이 분명하다. 특히, 인근 완산공원 전망대, 전주 한옥마을 등과 인접하여 관광권역 형성도 가능할 만큼 장소적 가치가 충분하다. 유휴 공간을 활용한 타 지자체 문화재생 사례로, 현대미술 작품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여의도 지하벙커와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 마포 문화비축기지가 있다. 과거 충무시설의 고유 특수성이 사라지면서 방치되어온 지역 유휴시설에 대한 전주시의 공간문화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라북도와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협의하기를 촉구한다.



## 장애인 일자리 정책제언



그들의 삶을 유지, 모든 일터에서 장애 유무와 상 할 수 없음이란 좌절이 아닌, 조금 불편하지만 무 관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주시 장애 인 일자리 정책이 지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좀 더 나은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정책을 제안 한다. 첫째,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 관련 조례 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장애 유형 및 연 령별 일자리에 대한 욕구를 조사할 수 있는 전수조 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되 어야 할 것이다. 전주시에서 살고 있는 장애를 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진 모든 시민들이 자신들이 지닌 장애가 아무것도 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 길 당부드린다.



#### 의정활동

## 공동체 주민축제, 제3회 평화마을 음악회

지난 10월 29일 전주시 온두레공동체로 활동 중인 '네모의 꿈' 공동체가 주최하는 평화마을 음악회 에 참여했다. 이날 평화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행사는 '네모의 꿈' 공동체가 그간 추진해온 아나바다장 터와 분식가게의 수익금에 주민들의 후원이 더해져 마련되었다. 음악회는 주민들의 플릇연주, 주민 노 래자랑, 경품 추첨 등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송의원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마을에 활력을 주고 있다"며, "주민 화합을 위한 장터, 축제 등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며, 이러한 소통의 장에서 주민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의원 이 되겠다"고 하였다.



# 비어있는 평화주공임대아파트, 청년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라

최근 공동주택의 빈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 있게 변모시켜야 한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실을 그 중 평화주공 1단지의 경우 공실수가 증가하고 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해 여러 세대와 계층이 어울려역 슬림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주거안 살 수 있는 지역 모델로 탈바꿈시켜야할 때이다.

죄는 공동수택의 빈십이 급격히 승가하고 있으며 그 중 평화주공 1단지의 경우 공실수가 증가하고 지역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7-8평 초소형 평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초소형 주택은 두 채 사이의 벽을 터서 한 채로 확장하는 '수요자 맞춤형 세대 벽 철거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영세한 주거 환경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에 청년 1인 가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 분위기를 젊고 활



#### 5분 자유발언

### 전주 시내버스 개선은 마을버스 도입이 정답이다

전주시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난제 중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것이 버스문제이다. 노선불만, 배차간 격, 난폭운전, 불친절, 파업 등 버스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전주시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은 2018년 310억 원이나 되지만 대중교통 서비스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분명한 마을버스 도입을 주장한다. 첫째, 완주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간선구간은 현재의 노선버스가 맡고 지선부분은 마을버스가 동네 구석구석 다니도록 하는 확실한 지간선제를 시행해야 한다. 둘째, 시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마을버스는 전주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셋째, 신규개발지역, 고지대 지역에 한정해서 운행하는 소극적 마을버스 도입이 아니라 대중교통소외지역과 소외주민이 없도록 운행해야 한다.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마을버스 도입을 촉구한다.





## 평화 청소년센터 건립 촉구



급격한 사회와 가족구조의 변화, 유해환경 증 가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방임 등의 문제는 정서 대의 경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적 · 신체적 학대로 나타나기도 하며, 특히 아동 · 청소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아동 · 청소년의 자기 계발을 위한 공간으로 전국적으로 아동 · 청소년 시 설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 주시에는 5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설치 · 운영 중 이며 아중 지역과 혁신지역에도 아동 · 청소년 센터

가 건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남부권역인 평화동 일 전무한 실정이며 지역적 불편등 해소를 위한 어떠 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아동 청소년 복지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아동 · 청소년이 건강 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모든 청소년들이 복지정책에서 소외됨 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가능성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평화 지역 청소년 센터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의정활동

### 전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이남숙 의원은 지난 6월 7일 전주시의회 소회의 실에서 기관장 및 사회복지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향상을 위한 간 담회를 갖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복지환경위 원회 부위원장인 이남숙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 선을 위한 전주시 조례 개정방향과 관련해 적정인건

비 준수 조항 신설. 실태조사의 기간 명시, 처우개선계획 수립 기간 명시 및 사업신설, 처우개선사업 구체 화, 인권 및 권리옹호 조항 개정,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조항 신설, 위원회의 운영 개정 등을 강조했다. 이 남숙 의원은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봉사자 로 인식돼 오면서 처우문제에 대해 정부가 간과해 왔다"며,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 우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 관련해 그룹홈 등 일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제외. 최저임금과 비슷하거나 그에 못 미치는 인건비, 수혜자에 의한 과도한 서비스 요구 등 종사자 직무 외 인권관련 보호 방안 부재 등이 조사됐다.



## 한옥마을 행정조직 개편 제안



현재 한옥마을 조성과 문화시설 유지 관리는 한옥마을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나, 한옥마을 내에서 행해지는 문화예술 행사는 전담 관리부서가 없다. 내방객 천만 명 시대 한옥마을은 단지 방문객만 많은 것이 아니라 시 주요 문화행사가 한옥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의 자발적 예술 공연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에 맞는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스톱 행정시스템은 첫째, 한옥마을 내문화시설 관리와 모든 문화행사를 통합・관리하고성과를 평가・분석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한옥마을 내 민원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

도록 행정시스템을 혁신하여 구축해야 한다. 셋째,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기 회를 보장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축제로 전환시킬 전 당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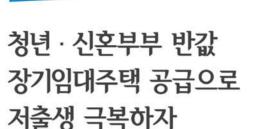


#### 의정활동

### 지역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봉사

김원주 의원은 지난 7월 13일 희망의샘 안전봉사대와 함께 서노송동에 소재한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여름철 기력회복을 위한 삼계탕과 수박, 부침개 등 잔칫상을 마련하는 등 전주도시혁신센터 일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미담 이경신 대표 등 80여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여름 보양식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벌여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삼계탕 600인분을 준비해 훈훈한 이웃사랑을 전했다. 한편, ㈜미담의 이경신 대표는 익산행복나눔 마켓뱅크에 750만원 상당의 훈제 닭고기 100박스를 기탁하는 등 매년 기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봉사활동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삼계탕을 드시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셨으면 한다"고 하였다.







오늘날 청년층의 주거불안 문제는 젊은이들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복합적이고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고 지방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 주택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도 청년 매입임대 주택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근본적 대안이 될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전주시는 전라북도에 주거 지원정책 및 반값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요청하고 전라북도의회 역시 실효성 있는대안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야 한다. 전주시는 출생

장려와 인구 감소 등을 뼈아픈 과제로 인식하고 종 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청년대상 주택지원 사업의 청 사진을 하루 빨리 전라북도와 논의하고 협의하여 추 지하기를 바라다.



#### 의정활동

###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 동문거리 가로정비 등에 대하여

현재 우리시의 몇 가지 미결된 시정에 관해 전반적으로 질문하고자 한다. 먼저 동문 상점가와 풍남문 일 대 지역의 상가활성화 및 빈 점포 속출에 대한 대책과 탄력적인 규제 완화 범위에 대한 시의 입장과 동문예술거리 부활을 위한 동문거리 재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자는 제안에 대한 시의 의견이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화산동 아파트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시의 견해와 종합경기장 개발에 우수한 국내기업을 상대로 문호를 개방하여진행할 것과 호텔컨벤션 사업을 시 재정사업으로 재전환하여 직영을 통한 문화—관광형 일자리를 창출할것,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 전주한옥마을의 미래, 재조명이 필요하다!



전주다운 한옥마을, 제2의 한옥마을의 도약을 위해 전주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말하고자 한다. 그동안 전주시의회에서 체류형 사계절 관광지 육성, 민간주도형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 한옥마을과 이중 호수~덕진연못을 잇는 야간경관명소 조성 등 주민의 염원을 담은 주장을 해왔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 고 있다. 이에 제2의 한옥마을의 발전을 위해 첫째, 전 주한옥마을 내 오목대를 중심으로 역사테마공원(일명 태조 이성계 공원) 조성 둘째, 후백제 역사담방길, 기 린 테마파크 조성 셋째, 다양하고 매력적인 이야기와 콘텐츠로 체류형 프로그램 재구성을 제안한다. 더불어 행정과 주민,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발전방향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통의 미래상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합의와 공감대 확산, 한옥생활에 대한 재인식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행정이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특별시로 재조명되고 있는 지금, 한옥마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급화하여 여행자의 수요와 전통문화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해 한층 더 성장한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주시 행정의 능동적인 대응을 기대한다.

#### 의정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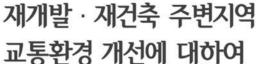
## 중노송동 낙수지역아동센터에 'JB희망의 공부방 제75호' 오픈

지난 11월 6일 중노송동 낙수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75호' 오픈식을 함께했다. 전북은행은 1004데이인 10월4일 전주풍남초등학교에서 열린 '제8회 천년전주 천년사랑 축제'에서 공부방 지원을 약속하고, 내부환경 개선이 필요한 낙수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여 아동들에게 적합한 책상과 의자, 책장, 사물함 등을 지원하고 LED전등 교체로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부방 시

설 정비를 했다. 특히 전북은행 직원들이 아동들의 희망멘토가 되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지역은행의 도움으로 지역의 아동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부방이 조성되어 정말 기쁘다"며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우리의 미래인 지역 아동들을 위한 교육 · 문화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신동 바구멀 지역 재개발을 비롯한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지역 교통량증가로 지역 일대가 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서신동 바구멀 재개발 지역의 경우 1,39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여서 동구간의 도로확장이 되지 않을 경우 입주민들은 물론 시민들의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주시와 시행사측 모두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조치 외에 추가적인 공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주시민의 원활한 교통환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한다. 첫째, 재개발·재건축주변지역의 교통영향 평가는 교통수요예측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양한 통행특성을 파악하여 전주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수

립이 수반되야 한다. 셋째, 전주천서로(서신교~진 북교) 구간 3개 차로를 4개 차로로 확장하고 인도 및 녹지 확보까지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 5분 자유발언

### 전주시 은행나무 가로수 환경개선에 대하여

도심의 가로수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경관개선 기능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해야한다. 하지만 전주시의 시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은행나무는 해마다 가을 이 무렵이면 길에 떨어진 은행열매의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쇄도하고 언제부턴가 천덕꾸러기로 전략하고 있다. 가을철 은행나무 가로수 환경개선 및 수종교체가 필요하며,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시책을 제안한다. 첫째,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중심사업 등 우선순위에 따라 수종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단기 계획 수립 필요하다. 둘째, 전주시 해당조례에 은행나무 가로수 길을 추가 명시하여 집중관리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은행나무 가로수관리를 통해 보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 중소기업 갑질하는 롯데에 종합경기장 내줄 수 없다

신화는 2009년 이후 매년 연 매출 600억 원이 넘 으며 우량기업으로 성장했다. 2012년, 롯데는 신화 우리 향토기업 청년 사업가와 직원들을 짓밟은 롯데 에게 사업을 제안했고, 두 기업은 거래를 시작했지 만 신화는 그때부터 악몽의 길로 들어섰다. 적자 누 적은 회계감사 결과 입증된 금액만 해도 109억 원이 었다. 이후 신화에 48억 원을 지급하라는 공정거래 조정원의 조정 판결을 거부한 롯데는 불공정거래 위 반으로 공정위원회에 자동 제소되자 대형로펌을 선

임하여 신화를 파산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에게 특혜까지 줘가며 전주종합경기장을 내줄 수 없 다. 롯데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전라북도 도 민과 중소기업 직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충분한 피 해보상을 해야 한다. 롯데에게 피와 땀으로 건립된 전주의 심장부, 종합경기장을 내줄 수 없다.

#### 시정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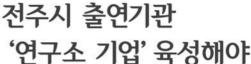
## 종합경기장 롯데에게 내줄 수 없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하여 롯데쇼핑과 2012년 체 결한 협약을 파기하고 롯데를 배제한 공개입찰을 통해 새 로운 사업자 선정 등 개발 전면에 관한 재검토 의견에 대 한 시의 의견과 롯데와의 협약을 파기할 수 없는 시민이 납 득할 만한 이유, 그리고 롯데백화점 이전에 따른 지역과 중 소상인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주시의 노력은 무엇이 있으며 지난 2015 회계연도부터 2017 회계연도까지 전주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등급 이 낮은 이유, 지난 10년간 전주시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 으로 증가한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묻는다.



의정활동





지역 기업의 경쟁력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연구소 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80여건의 특허와 다양한 상용화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니만 실질적인 기업유 치나 일자리 창출 등 전주 산업경제에 효과성을 높이는 성과는 미비한 측면이 있었으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국가공모사업의 주관기관인 기업들이 특허와원천기술을 독점 소유하는 경우가 많고, 전주시 소유의 기술이더라도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실용화를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따라서 특허 및 원천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보유기술을 실용화를 통해, 지역 기업의 매출 신장과 다양한 사업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을 공유하고 지원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 내 연구소 기업 의 설립과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연구원은 지역 연구기관이자 기업의 창업 및 지원 파트너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연구소 기업 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주 산업경제 신장과 일거리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의정활동

###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대표발의

박형배 의원은 제36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규탄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된 바 있다. 이후, 일본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하는 등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작금의 일본정부 행태는 우리 국민의 반일 정서에 불을 지피는 격으로 66만 전주시민의 목소리와 정서를 대변하는 전주시의 회역시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모아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 수용하며 일본기업들의 정당한 배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일련의 경제보복 및 협박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 효자4동 주민센터 신속한 건립 촉구한다

22년 만에 분동된 효자4동 주민센터는 효자5택지 외진 곳의 건물을 임대하여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있 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이다. 신 어 이용이 불편하며, 임시청사 건물이 상가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행정서비스와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시설로는 매우 부적합하다. 또한 임차기간이 1년 3개월 밖에 남지 않아 1년 안에 새 주민센터가 완공되 지 않으면 재임대를 하거나 다른 건물을 임대해야 하 는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세가지 안을 제시하며 주민센터 건립을 촉구한다. 첫째, 현재 전주 푸드 급식지원센터로 이용 중인 (구)효자4동 주민센 터 부지에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방안, 둘째, 효자4동

근린공원 일부에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방안. 셋째. 전 속한 판단으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시설 건립 에 속도감을 발휘해 주기 바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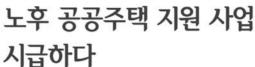
#### 5분 자유발언

### 교통난 해소 위한 트램 · BRT 도입을 추진하라

생활인구 최대 130만 도시답게 획기적인 교통수단이 요구된다. 무가선 저상 노면전차인 트램(Tram)은 대용량 배터리를 주동력으로 사용해 전력선 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세대 교통수단이다. 트램은 대기오염 물 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직접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며, 관광산업 및 지역개발 교통수단과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수단으로도 용이하다. 간선급했버스인 BRT(Bus Rapid Transit)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시키는 시스템이다.

전주시는 백제로와 팔달로를 중심으로 BRT 버스노선을 설치하면 이와 연결되는 서부권, 서신권 등을 유 기적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다.







전주시는 공동주택 거주율이 60%가 넘는다. 보통 공동주택이 20여년이 경과하면 단지 내 곳곳에 손봐야 할 곳이 생긴다. 전주시도 주택조례를 제정, 20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을 선정해 2천만 원 이내에서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내 빈집이 늘어가고 독거노인 세대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비 미납과 장기수선 충당금의 미 충당으로 제때 공동주택의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수선 지원 금약을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기한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등 심각한 노후 상태의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해 나 가야 할 것이다.



#### 5분 자유발언

## 전동킥보드 안정성확보 시급하다

요즘 교통안전의 새로운 골칫거리는 '킥라니'다.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말로, 도로에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데서 유래한 신조어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고도 늘고 있다. 주행안전기준이 없고, 보험은 업체마다 제각각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 원동기 또는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자전거도로 및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운행해야 한다. 헬멧 등 보호장구도 착용이 의무이지만 이를 지켜 주행하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고 단속은 하지않는 분위기다. 올해 6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정부의 전동킥보드 주행안전기준은 진척이 없다. 대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관련 산업의 성장도 주목되지만 보행자와 차량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애매한 분류로 안전상의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로드맵 구축하라

전라북도의 인구는 2016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 아 수를 역전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리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목표를 위한 로드맵을 구 시작되어 현재 고착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전북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전주시가 당면한 과제라 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전주시의 출산인구는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일자리 등을 찾아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청년인구 또한 상당하다. 전주시의 인 구감소 원인은 크게 청년인구 유출과 저출생 문제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청년층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

인은 일자리의 양적 · 질적 문제이다. 사람중심 일자 성하여 종합적인 대응전략과 관련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이 필수이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사회적 분위기와 보육환경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 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전주 형 인구정책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추진을 위해 중ㆍ장기적인 계획과 각 부서별 협력체계 플랫폼 구 축이 필요하다.

#### 5분 자유발언

##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촉구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72만 명에 달하며 치매환 자 관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4조 원에 이른다. 가속화되 는 고령화로 노인 치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치매 국가 안심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주시도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병원을 치매전문요양병원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 력을 하고 있지만 치매인구에 비해 전문적인 의료지원 및 치매전 담형 노인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주시도 치매 관 련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지역형평성을 고려하여 덕진구에 추가적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해야 한 다. 전주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 가능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을 계획하고. 이 계획이 포함된 도시재생 뉴 딜 공모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







전주시 거점형 버스정류장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을 촉구한다

최근 정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 중 하나로 공 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국 시 내버스 4,200대에 공공와이파이 정식 서비스를 개 시한다는 발표 등 정부를 비롯해 우리 전주시를 포 함한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시설을 거점으로 공공 와 이파이 지역을 늘려가고 있다. 전주시 역시 스마트 시티 구현을 목표로 하지만 뚜렷한 계획 및 성과 없 이 방치된 측면이 강하다. 우리시도 시내버스 5개 업체에서 130대에 장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더 높 은 효과를 위해서는 버스정류장에 와이파이 존 확충 이 반드시 필요하다. 버스정류장을 활용한 거점형 공공 와이파이존 사업을 통해 통신비 절감이라는 복 지목적도 이루고 전주형 스마트시티 조성의 인프라 를 통한 혁신적이고 현명한 공공와이파이존 사업을 강력히 촉구한다.



#### 5분 자유발언

### 민간 공유전기자전거의 도로무단점유 대책을 촉구한다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카카오바이크는 지난 7월에 전주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사용자가 이용이 완료된 지점에 전기자전거를 주차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도로법 제 61조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기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상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행위는 공공운송사업의 매출에 영향을 끼쳐 우리시가 보전하는 공공운송사업자 적자보전금의 지출액이 증가 할 것이고, 전주시민자전거보험 지출액이 증가하여 차기년도 보험요율의 인상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주차로 발생한 사고에 전주시의 책임이 없다할 순 없을 것이다. 서비스의 편리성은 인정하나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도로무단점유에는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고, 사회적합의를 통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 지역의 대표적 전통문화콘텐츠, 전주기접놀이의 육성책이 필요하다

로서 2016년에는 영예의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하 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전주기접놀이에 관 며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드높였다. 특히 작 년에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받음 으로써 명실상부한 전주의 대표 전통문화놀이로 자 리 잡게 되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염원했던 전주기 접놀이 전수관 건립사업(50억)이 효천지구 개발 추 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이면 공사가 착 공될 예정이다. 앞으로 전주기접놀이의 육성 ·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전주시의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

전주기접놀이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놀이 주기접놀이 거리 조성 사업 및 기접놀이마당(공연 한 전주시 축제 전반에 접목 가능한 공연 콘텐츠화 사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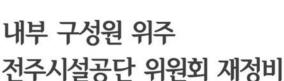


#### 5분 자유발언

### 전주시 생태하천.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하천은 도시 재생 동력이되고, 하천개발 생태도심형 경관 개선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전주천 정비사업, 삼천천 복원사업으로 대표되는 전주시 사업은 전국적인 성공사례가 되었으며,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전주천, 삼천천은 방치되어 수변관리가 안될 뿐 아니라 유속 감소 및 수위 상승의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 실 정이다. 민관협의체 하에 생태하천 유지 관리라는 기조에 따른 즉각적인 관리는 어렵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 다. 수생식물이나 동식물의 서식처로 중요함도 인정하나 지나치게 번성하여 수류에 장애가 되면 재난위험 요인이 된다는 점은 전주시가 미리 대비해야한다. 주기적인 벌채와 간벌의 방식은 적정한 하천 식재 관리 방 안의 기본이다. 민관협력 방식에서 공론화 하여. 전주시만의 친환경 생태하천 관리계획 또는 기본지침을 조 속히 마련하고, 적정한 예산확보 및 단계별 추진전략을 진행이 필요하다.







김현덕 의원은 2월 18일 열린 전주시설공단 업무보고 석상에서 "전주시설공단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를 재정비 해야한다"고 전제한 뒤 정관과 각종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개정할 규정이 있으면 즉각 개정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단 임원,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공단 인사규정 제48조(구성)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경영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이상으로 재직 경력자, 국가 또는 지방공기업 부장급이상 간부 경력자, 변호사, 노무사 또는 노동 관

련 전문가, 시의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로 규 정되어 있다



#### 의정활동

###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법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대표발의

김현덕 의원이 제361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법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대표 발의 하였다. 본 성명서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농대 이전 취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써 한농 대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발전 향상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마저 용역 발주를 통해 제2의 한농대 캠퍼스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목표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 에 한농대 분교법안과 농림축산식품부의 한농대 분교 검토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분권을 정면으 로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66만 전주시민의 이름으로 한농대 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하고 있다.



전통한지 복원 위한 행정 노력 절실



장, 건조장, 체험 및 교육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 인 자문단 보충과 책임 있는 감독제도 필요하다. 전 다. 하지만 토지매입이 늦어지면서 전통한지 복원사 통한지 제작방법을 복원해 낼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업에 관한 과정이 쫓기듯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행정의 노력이 절실하다. 통한지 복원은 더 많은 시간과 집중적인 자문 등이 필요하며 건물하나 짓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 다. 따라서 전통한지 복원을 위해 다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물, 둘째 닥나무 원료, 셋째 전통한지 장인의 육성이다. 이 세 가지 핵심을 전제 로 향후 추진될 전통한지 제조공장의 설계 관련 사 업지시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지속

전주시는 전통한지 복원을 위해 전통한지 제조공 가능하고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전문적



#### 시정질문

###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전반에 관하여

최근 재앙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국민불안 1위로 최대현안이다. 이에 정 부가 대책을 마련 중이며 전주시도 강화된 전주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체계적인 미 세먼지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한 전주 지역 권역별 미세먼지의 특성 및 발생원인 등을 살필 수 있는 연구용역 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 · 노인 등이 이용하 는 시설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및 휴원사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조례를 보완 · 개정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전주형 미세먼지 행동가이드 매뉴 얼 개발과 민관협력 방식의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활성화 시켜야 하며 매뉴얼 홍보를 통한 맞춤형 대응 교육 활성화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 촉구

최근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시설 문제를 계기로 환경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에서 집계된 2018년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현황에 따르면 전주시 곳곳에 93개소의 허가 사업장이 있다.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사고는 화학물에 의한 폭발, 화재, 대기오염 물질 배출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사고예방 대책을 포함하여 사고 시 대응대책을 미리수립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는 국가 및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7조의 2에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명시하여 사고에 대비·대응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도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 정을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 책을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 5분 자유발언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촉구

오늘날 육아의 어려움을 이유로 젊은 세대가 출산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2010년부터 정부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부모들의 육아부담 완화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둘째 부모와 충분한 신뢰와 정서적 유대 형성의 시간을 주고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배우는 등 정서적 안정과 인성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셋째, 아빠들의 육아 참여로 가족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육아를 통한 육아부담 완화로 저출생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2011년 1호점이 개설된 이후 지금까지 공동육아센터가 1개소뿐인 만큼 생활육아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 의정활동



## 현대차 전주서비스센터 어르신들 건강한 여름나기 효도잔치 행사 참여

지난 7월 6일 현대자동차 전주서비스센터에서 추진한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돕기 위한 효도잔치에 참여, 격려하였다. 이날 전 주시 팔복동 소재 전주서비스센터 내 특설행사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송천 1·2동에 거주하는 어르신 100여명이 참가해 흥겨운 공연 등을 즐기며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현대자동차 전주서비스센터는 지난 2014년 전주시 반월동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처음 잔치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올해로 6년째 지속적으로 효도잔치를 열어오고 있다. 한편,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현대자동차 전주서비스

센터 노사의 효도잔치는 80여명의 직원들이 매월 자발적으로 적립 중인 회비를 재원으로 매년 7월 에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 의정활동

## 전북은행 전주시 송천동에 JB희망의 공부방 제92호 오픈, 축하 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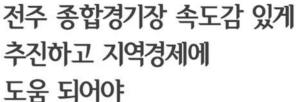


지난 10월 1일 송천동에 위치한 시영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 망의 공부방 제92호 오픈식'에 참여하여 축하격려를 하였다. 시영지역아동센터는 2009년 개소 후 주변일대 아동들에게 방임방치로부터 보호서비스, 다양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화된 센터 내 공부방 환경개선에 어려움이 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오랜

기간 사용해 파손된 책상과 책장 등을 새롭게 지원하여 아동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좌탁, 신발장 등을 지원해 아동들이 편안하게 공부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전북은 행 송천동지점에서는 학령기에 있는 아동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역아동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지속 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마이스 (MICE)산업 전진기지로 개발하여 시민에게 돌려주 겠다고 발표했다. 특혜논란에 따른 반대의견이 있지만 이제는 이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속



도감 있는 사업추진에 집중해야 한다. 마이스산업은 규모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개발계획이 수립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추가적으로 제안한다. 첫째, 적정 규모의 컨벤션센터가조성되도록 시의회 등과 함께 개발계획안의 세부내역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시청사 이전 건축지로 적합한 종합경기장 주변부지 활용을 재검토해야한다. 셋째,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도입을 촉구한다. 넷째,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도록 지역 문화활동 확대와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해야한다.

#### 5분 자유발언

### 전주 지역상권관리 정책수립 및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촉구!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은 구도심 뿐 아니라 새로 형성된 상권에서도 빈 점포를 통해 드러난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주시의 관심과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당부하며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소규모 상업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특화발전전략과 연차별 추진계획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단체의 추진의지가 중요하다. 정책개발과 상권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을 통한 상권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전주시 실정에 맞는 상생정책들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한다. 공공안심상가조성의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들이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넷째,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단을 신설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현장에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의정활동

## 사랑의울타리 찰밥 봉사



당에서 4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찰밥을 대접하는 봉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 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사랑의울타리 회원 10명이 참여하여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찰밥과 밑반 찬 등을 차려드리면서 말벗이 되어드리는 봉사활동 으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팔복동 사랑의 울타리 는 수년째 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 밑반찬 지원봉 사 등 지역 어르신 섬김 봉사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지난 5월에도 관내 어르신들의 홀로어르신 효자효 부 되어드리기, 말벗봉사 등의 봉사활동으로 지역봉 사단체로 귀감이 되고 있다. 송의원은 "앞으로도 어

팔복동 사랑의울타리는 7월 23일 관내 상리경로 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서로서로 정을 나누는 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하였다.



#### 의정활동

### 조촌동, 지역어르신 점심나눔 어울림 한마당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대한적십자사 조촌동봉사회 는 11월 14일 동주민센터에서 지역어르신 500여명을 모시고 무료 점심 나눔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평소 우울증으로 집에만 게시는 은둔형 홀로어르신과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어 울리는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으로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동네복지, 통합문화이용권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교류와 지역봉사단체의 활동을 알리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대접하고자 2개 단체 회원들이 뜻을 모아 바자회 수익금 및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동산신 협, 독지가 협찬 등으로 마련됐다.





공동주택 도시가스 원격검침 계량기 검침 교체 비용 주민 부담 안된다

도시가스는 완벽한 지역분할 방식으로 독점 관리되 고 있어 독점에 따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 재 정부에서는 가스계량기 선진화 정책으로 신도심 공 동주택에 워격검침 계량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상당한 인건비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 이러한 비용절감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도심 공동주택의 계량기 관리비용을 불합리하게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현행법상 어 쩔 수 없다고 하지만 도시가스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 회적 공공재이기 때문에 단순 민영사업 영역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에 관내 공동주택 원격검침 계 량기 관련 전수조시를 실시하고 부당한 도시가스 관리 체계에 대한 도시가스사측에 강력한 대안마련을 촉구 하여 공동주택 측과 도시가스사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 바란다.

#### 의정활동

### 에코시티 대형마트 부당이득 특혜의혹해소하라



'에코시티'는 옛 35사단 이전 용지에 세병공원, 세병호, 백석저 수지 등 자연친화적인 신도시로 개발됨과 동시에 교육, 상업, 체 육, 복합커뮤니티 시설 등을 품고 있어 전주 시민들이 많은 기대 감을 가지고 입주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에코시티에 대형마트 를 올해까지 유치하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 계약은 조 건부 계약이지만 처음부터 미 이행시 대책이 마련되어 않았고. 계약당사자는 사업이행을 위한 노력은커녕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부당이득 특혜 의혹을 해소 바란다

## '전주비빔빵' 적극적인 감독 필요

'전주비빔빵'은 노인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로 주목받은 사회적 기업이 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시 보조금 부당 수령하고 고용지원금 편취하고 있으며 사 장과 노동자간 갑질 문제가 불거져 의혹 을 넘어 경찰조사 중에 있다. 지원 여부는

전라북도에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시민의 혈세가 보조금으로 투입되고 노동자인 시 민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으니, 전라북 도나 고용노동부, 경찰조시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시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



#### 의정활동



## NGO 한국노년유권자연맹 의회발전부문 대상 수상

한 공로로 NGO 한국노년유권자연맹 의회 발전부 가지고 효행 및 일자리 창출 등 노인 정책을 적극 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강동화 부의장이 지난 11월 2일 전 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 주시청 강당에서 '제14회 대한민국 경로효친대상 전에 헌신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강동화 의원 시상식'에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 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 문 대상을 받았다. 평소 노인문제에 많은 관심을 의 말씀에 귀 기울여 현실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추

#### 의정활동

##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장 찾아 출전 어르신 격려

전주시의회 강동화 부의장이 지난 5월 30일 전 주시의회를 대표해 정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19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장을 찾아 출전 어 르신들을 격려했다. 강 부의장은 대회가 열린 첫날 인 이날, 이번 대회에 참석한 2,000여명의 어르신 들에게 "어르신 모두가 즐기는 축제인 만큼 돈독한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생활체 육 활동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부의장은 "건강 100세를 맞이해 앞으로도 어르신들게 생활체육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평생 실천할 수 있는 체육정책 개발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노인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65세 이상 어르신 2,000여명이 9개 종목에서 선 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희망하고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자치회는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실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전국 38개 읍면동에서 첫 발을 내딛었고 현재 95개 읍면동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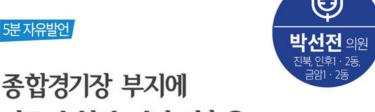
시행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센터와 협의 · 심의를 통해 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문 제를 직접 해결하고 자치활동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전주시는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고사하고, 주민설명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방의회와 협의를 제대로 한 적도 없다. 하지만 타 지역 자치단체는 벌써 6년 전에 이미 사전준비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준비를 하고 있다. 전주시도 주민 자치회가 제대로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행정의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

#### 의정활동

##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호성 의원은 지난 5월 13일 제35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며 대표발의 하였다. 또한, 그 외 법령 기준과 형식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히 하고 전주시의회 회의 체계를 바로잡고 행정의 효율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전주시 청사 이전 신축을 촉구한다

전주시 청사는 인구 10만명 이하 시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청사규모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목 전주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 전주시의 미래를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사 인근 건물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건물주 측 매각의사가 없어 무 산되었다. 근본적인 주차문제와 부족한 업무공간을 해결하려면 청사이전이 필요하며 청사 이전과 시민 공원을 함께 추진한다면 완산구와 덕진구의 균형감 있는 개발이 될 것이다. 또한 청사 이전으로 인한 구 도심 공동화 현상은 완산구 내 공공기관 및 시 산하 기관 이전으로 공동화 방지가 충분할 것이다. 이어 서 지지부진한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위

해 터미널측과 상가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 라보고 그에 맞는 시청사 건립과 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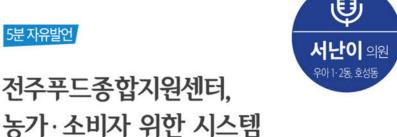
#### 5분 자유발언

### 건산천 악취,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뜨거운 여름이 성큼 다가옴에 따라 금암동, 진북동 일대 건산천 주변 주민들은 악취발생을 더욱 걱정하 고 있다. 전주시는 2012년부터 노송천 프로젝트 2단계 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 5월 모 든 공시를 마무리했으나 사업 완공 이후 지류하수관거 미정비로 강우 시 하천 내에 생활하수가 유입돼 수 질오염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가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하수분리를 하는 분류식 하수관거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나 당초 건산천 생태하천공사 이전에 하수관거 공사를 제대로 완 료하지 못했다. 주민들의 피해 해결을 위해서는 하상준설 사업을 추진해 건산천 복개 종점에서 노송천간 천체 구간 중 200m 이상 하상준설(워터제트크리닝)에 나서야한다. 악취해결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전 주시의 부단한 노력을 촉구한다.



구축해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전주시가 2015년 출연 기관 형태라는 선도적인 방향으로 출범한 기관이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직매장에 생산품을 공급하 는 농가에게 매일 판매량을 문자로 발송하고 주마다

정산하여 농가에게 입금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인지 농가에게 당연히 발행해야 할 정산서를 발급하 지 않았으며 관련 예산안은 승인을 받았어야 했음에 도 서면심의로 진행하였다. 또한 생산자회를 통해서 만 생산품을 공급받을 계획이라는 논의가 이루어졌 다고 하는데 왜 이런 단일시스템을 구출하려는 것인 지. 전주푸드종합지원센터와 사단법인 전주푸드 생 산자회의 관계는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전주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려는 전주푸드플래의 초심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 5분 자유발언

### 건설현장 소음 · 먼지 민원,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결하라

건설 공사장의 소음과 먼지는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며, 건설사와 시민들의 갈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민원은 환경 변화에 법적 기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 해결 또한 쉽지 않다. 이는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고충이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가 있다. 공사장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외부에 전광판을 설치, 실시간 소음 데이터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주시도 현실에 맞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공사 현 장에 이를 의무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비중이 높은 공사업체에 대해,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공사업체와 시민 간의 갈등 분쟁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



## '롯데특례시' 전주를 반대한다



일본 아베 우익 정권이 자초한 일본 불매운동이 들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라는 이름이 국민들에게 호명되고 있다. 종합경기장 노른자 땅 부지에 유치될 롯데호텔은 99.28%의 지분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 일본 회사이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한 발언을 한후 전주시는 '5분 발언 추진상황'이라는 공식문서를 통해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협약해지는 불가하며,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함 및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이는 그간 김승수 시장의 '단 1%의 해지 가능성도 없다'라는 주장과는 다르다. 협약 해지를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입장을 내놓 아야 하며, 더 이상 전주시의회를 '패싱'하며 일방 적 주장, 예산편성, 사업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



#### 상임위 발언

## '시민의숲 1963추진단' 명칭변경 시기적으로 안 맞다

'체육종합시설추진단'에서 '시민의숲 1963추진단'으로 명칭변경의 건에 대하여 시기적, 사업계획변 경안이나 사업계획안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통해서 전주시의회에서 이사업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적정한 명명을 하는 것은 충분히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것이 약간의 논란이 있고 사업이 현재 전주시의회에서 동의가 되지않은 상황에서 이름을 먼저 바꾼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 시민의숲1963추진단으로 명칭변경의 건은 현재 명칭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송천1동 구도심지역 도로정비 촉구한다



송천동은 에코시티 개발로 전주시 북부권 개발 의 중심 역할을 하는 신도심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8년 12월 기준 전체 인구의 87% 달해 아파트 밀 집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첨단시설을 갖춘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송천동이지만 소방차는커녕 미니 화물차 한 대 지나갈 수 없는 동네가 있는 곳 역시 송천동이다. 현 롯데마트 뒤편에는 팔학골, 학암마 을을 포함하여 송천1동 대부분의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는 도로이다. 송천1동 구도심 마을은 화재나 재 난 발생 시 제대로 된 대처가 힘들고 소방차가 진입 할 수 있는 소로가 제대로 개설되어 있지 않아 주민 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 따라서 작은 소로들을 연결 하는 12m 도로의 개설과 함께 천마지구부터 계획된 건지산 우회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 송천동이 소방 차와 구급차가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안전한 동 네가 되길 희망하다.

#### 의정활동

### 송천1동 동민의날,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참여



지난 10월 26일 솔빛 중학교 강당에서 주민 5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2019 송천1동 동민의날 축제를 개최했다. 솔내청소년수련관 풍물패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된 기념식에서는 모범동민에 대한 표창과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5명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기념식에이어 진행된 화합한마당행사에서는 난타공연과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주민들이 참여하는 장기자랑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추진위원회 서철교 위원장은 "단순히 먹고 즐기는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모두가 함계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했다"며, "주민들이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추억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 선진화된 노인치매정책 시급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 지침에 비해 인력이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전문인 주시의 경우 치매 정책에서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력을 채용하고 정규직 비중 또한 높여야 한다. 둘 인식하고 관내 병원들과 오랜 기간 협력체계를 구 째, 치매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치매친화 축하여 치매 조기검진 정책이 체계적으로 구축되 어 있다. 다만 전주시의 치매정책이 한 발짝 더 나 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할 난제들이 있으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현재 전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는 주시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 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 진해야 한다. 셋째, 치매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신적 · 심리적 건강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의정활동

### 생명존중 문화 확산 토론회 극단적 선택 막기 위한 정책논의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윤자 의원이 주최한 생 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가 지난 11월 15일 전 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생명을 스스로 포 기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막고 소중한 생명존중 문화를 우리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귀중한 정책 방향의 시간이 되었다. 이윤자 의원의 진행 으로 시작된 토론회는 발제자인 강종대 예수병원 의료 사회복지사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이



란 주제로 한국사회의 갑질 문화 등 인간 경시 풍조에 대한 성찰과 함께 인간의 도덕지능과 공감능력의 중요 성 등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이해와 인간존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 은 이윤자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 및 지 자체 차원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나 캠페인 등이 추진되어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시 공정관광 브랜드 개발 및 정책지원 촉구

관광개발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방정부 세입증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지만, 지역민 사생활 침해, 소음과쓰레기 증가 등 부정적 영향도 발생한다. 전주 역시양적 중심의 성장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의 마찰 등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 삶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측면에서 관광객과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관광 브랜드를 개발하고 정립해야 한다. 공정관광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는 첫째, 전주시 공정관광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정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둘째, 정숙 관광 프로그램에 지역민의 참여를유도하여 문화 이해를 돕고, 지속적 확산 노력을 해

야 한다. 셋째, 친환경 관광 프로그램 인증제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 공정관광 개념 도입을 통해 관광객 과 지역민의 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의 시 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정책개발에 관심 가져 줄 것 을 촉구한다.



#### 5분 자유발언

### 명예시민증 수여의 올바른 기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주시 명예시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전주의 든든한 후원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올바른 명예시민증 수여 기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자의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현행제도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시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발할 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야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명예시민증 수여가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셋째,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가 그 권위와 위상에 맞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가칭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의결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의 뜻을 담아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개정은 물론 선발 기준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 5분자유발언





## 주민지원기금의 적법한 집행 위해 철처히 관리 해야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세금으로 조성 · 지원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의 사업계획서와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주시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전주시가 공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주시는 기금 중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해야 할금액 중 일부를 협의체 운영비로 불법적으로 전환사용하였다. 또한 세금으로 조성된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중 시가 교부해 집행한 7억6000만원은 마을 빌라 등 불법 증축건물에 지원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전주시가 기금 전액을 협의체에 교부

해 위임함으로써 생긴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라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전주시는 협의체가 법과 조례를 철저히 지켜 협의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관리감독 역할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 의정활동

##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의 종료 관련 전주시와 노동계의 갈등과 관련하여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의 종료를 앞두고 전주시 청소대행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둘러싼 전주시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각하다. 특히 청소 대행업체 민간위탁 근로자와 직접고용 근로자의 인건비와 고용불안 문제는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또한 수집·운반 업체 차량 감가상각비과다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와 민간보조금 정산 문제, 잘못 지급된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마련하고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환수조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는 공공서비스는 결국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와 고용안정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주시와 위탁청소노동자들이 갈등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위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찾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지방의화**조** 체험교실 운영

## 전주시 관내 초등학생 대상, 풀뿌리 민주주의 체험 기회 제공







전주시의회는 미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초등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고, 지방의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지난 2007년부터 전주시 관내 초등학생 (4학년~6학년)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의회 체험교실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홍보 동영상 관람 및 설명, 3분 자유발언, 퀴즈풀이, 의회청사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회를 체험하게 된다. 체험교실은 갈수록 교사와 참여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국 지방의회 우수 사례로 타 지역 지방의회의 벤치마킹 대상이되고 있다. 어린이의회 체험교실은 매년학기 초교육지원청 또는 전주시의회를통해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 전주시의회, 청렴다짐교육 수료

- 청주 청렴연수원서 청렴서약 등 신뢰받는 의회 조성 노력 -







전주시의회가 의원들의 청렴도 향상과 신뢰받는 청렴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4월 23일 충북 청주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청렴다짐과정을 수료했다.

이날 교육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리더로서 지방 의원이 갖추어야 할 청렴리더십에 대한 인식에서 부터 의정활동 과정에서 꼭 필요한 청탁금지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됐다. 또한 청렴이라는 주제를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재미있게 풀어낸 청렴콘서트와 지역사회의 리더이자 주민의 대표로서 청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기 위한 개인별 청렴서약을 통해 청렴의지를 높였다.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은 "청렴은 우리 의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의무이자 약속이다."며 "이 반 교육을 통해 청렴리더십 역량을 함양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낡고 오래된 마을에 꽃이 피다 전주 도시재생

도시재생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부터 전주는 한옥마을을 지키고 가꾸어 왔다. 그 결과 전주한옥마을 은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게 되었다. 하지만 한 옥마을 도시재생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구 도심은 급격히 쇠퇴하였다.

민선 6~7기, 전주시는 천편일률적인 '개발' 대신 '재생'을 통해 '사람 중심 전주의 고른 발전'을 만들겠다는 도시재생 계획을 발표, 현재 크고 작은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완산구는 구도심 아시아문화 심장터 100만 평 플랜을 중심으로, 덕진구는 덕진뮤지 엄밸리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펼쳐가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의 싹이 하나둘 돋아나고 있다.

전주의 보물인 구도심 아시이문화심장터 100만 평은 올해 사업들이 본궤도에 올라 전라감영 1단계 복원이 완료되고, 서노송 예술촌 문화재생 등이 가시적 성과를 낼전망이다. 덕진구의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법원, 검찰청 부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과 법조삼현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 또, 60년 된 팔복공단은 예술공단과 청년공단으로 재구성하여 전주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 전주 역세권은 전주역을 신축하고, 청년 창업자 공간을 조성하는 등 제2의 부흥기를 맞게 될 것이다.

전주형 도시재생은 전주만의 '자기다움'을 간직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적절히 결합한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는 전 과 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통한 주민 간 상시 소통으로 오래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구도심 100만 평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시업'. 오는 2020년 까지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구도심 일원에 1,05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구도심의 심장에 풍패지관이 복원되며, 전라감영 1단계 복원 철저한 발굴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주부성 일부 복원 역사도심 재생 독립영화의 집 건립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된다.

## 용머리 여의주미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용머리 여의주미을 은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마을 내 주차장과 진입로 등 기초생활 인프리를 확충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또 행정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수행 하고 마을 현장에서 주민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 할 용머리 여의주마을 현장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 팔복예술공단과 팔복청년공단

팔복공단은 예술공단과 청년공단으로 재구성하여 전주의 성장을 이끌 예정이다. 팔복예술공장, 이호예술놀이 터, 예술기첫길 금학천 생태환경 복원 지붕 없는 미술관등 팔복예술공단 5대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 오래된 팔복공단을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공단의 기능을 새롭게 바꿀 예정이다. 이곳에 지식산업센터 등이 건립된다.



팔

#### 덕진뮤지엄밸리 조성

전주종합경기장에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검찰청 부지 일대는 뮤지엄밸리로 조성한다. 전주지방법원 · 검찰청 부지에는 문화원형 콘텐츠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 전시관'과 법조삼현기념관 및 법조인 명예의 전당을 건립할 계획이다.

### 덕진동 르네상스 사업

국토교통부 재생사업에 선정된 덕진동 르네상스 사업은 덕 진초 주변 옐로우 카펫 담장 및 전봇대 도색 꽃길 조성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내 폐공기와 성매매업소를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인권'과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며, 문화예술복합공간과 새활용 생산 · 유통 · 교육의 거점공간인 전주시 새활용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 서학동 예술마을 조성 시업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 딜사업'은 국비 100억 원 등 사업비 172억 원 규모의 사업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노후 주거지 정비, 예술테마거리 및 창작레지던시플라자 조성, 첨단안전마을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학동 예술마을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였다.





##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시업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 중인 '도시 재생뉴딜'사업.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 창 업자나 예술인들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마중길 현 장지원센터가 지난 3월 중순 문을 열었다. 또 전주시 · 국토부 · 철도관리 공단 · 코레일이 힘을 모아 선상역사 형태로 전주역사를 산축할 계획이다.

## 승암새뜰마을시업

승암 새뜰미을 조성 시업은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시업으로 낙후된 미을 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또 승암산 자락에는 세계평화의전당이 들어선다.

## 노송동소규모재생시업

원도심 노후 주거지의 물리적 · 문화적 박탈감 해소와 주민 조직의 안정적 활동을 돕기 위해 마을공동체 거점 조성, 집수리 공작소 및 공구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전주시지속가능지표'

# 시민의 삶,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 모양에 따라 시민들의 삶도 변화한다. 도시가 좋은 모양이어야 좋은 삶이 만들어 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10년간 '전주시지속가능 지표'를 만든 이유는 이 때문이다. 비행기나 배가 가야 할 진로를 계기판이나 나침반이 보여 주듯이, 전주가 나아가 야 할 지속가능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평가 수단이 바로 지 속가능지표이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전주지속가능발전협 의회는 '꿈이 크는 전주, 함께 웃는 온고을'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지도를 시민들 과 함께 그려 온 것이다.

올해는 시민의 삶을 반영한 사회와 복지, 교육, 생태환경, 생활환경, 경제, 문화 등 총 6개 분야 50개 지표를 마련했다. 지표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전문가·공공기관, 전주시의회 등 55개 기관과 74명의 평가위원, 50명의 조사위원들이 참여하였으며, 1년간 총 43회의 워크숍과 분과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거쳤다. 이렇게 어렵게 도출된 올해의 지표는 6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리는 '십 년째 만남' 행사에서 공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9 전주시지속가능지표 10년의 성과 발표회와 토크콘서트, 전주시지속가능지표대상 시상식이 열린다

〈전주다움〉이 준비한 '전주시지속가능지표 인포그래픽'을 통해 전주가 걸어온 길을 짚어 보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을 살펴보자.

#### 전주시지속가능지표 발표회

일시 | 6, 28, 오후 6시 30분, 팔복예술공장 문의 | 063-281-2974





## 원도심 초등학생 수,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원도심이 새로운 활기로 꿈틀대고 있다. 전주의 미래를 꽃피울 꿈나무, 초등학생 수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몇 해 전까지도 감소를 기록하던 전주원도심 지역 초등학생 수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2018년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대비학생수



경제

## 지난해 경기전에 몇 명이나 다녀갔나요?

경기전 입장객 수는 2018년 904,813명으로 집계되어 2016년과 2017년에 비해 다소 관람객의 발길이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2년 449,774명에 비해서는 두 배 넘게 늘어나, 전주가 몇 년 사이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꾸준히 성장해 왔음을 알수 있다.

# 904,813



## 생태

### 삼천에는 몇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나요?

삼천에 서식하는 새의 수가 2016년에 비해 100여 개체 늘었다. 2012년 44종 2,263마리였으나 2016년에는 28종 1,568마리로 크게 감소, 그러나 전주시의 다양한 생태도시 사업이 병행되면서 2018년 다시 상승해 49종 1,671마리가 관찰된 것이다. 맑고 푸른 생태하천으로 거듭난 삼천에서 더욱 많은 수의 생물이 뛰놀길 소망한다.



문화

## 월 1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시민은 몇 명인가요?

많은 시민들이 '더불어 사는 전주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월 1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건수가 2016년 129,705건에 비해 2018년에는 163,024건으로 2년 사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봉사의 가치에 공감하고 행동하는 자 원봉사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복지

**163,024**건



한옥마을 문화 프로그램, 시민들은 얼마나 참여하나요? 2016년 37,398명, 2017년 35,098명이던 한옥마을 대표 프로그램 체험객 수는 2018년 37,94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전주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옥마을 문화기관 등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천만 관광지의 명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2018년 한옥마을 대표 프로그램 체험객

**37,940** 명

생활

환경

#### 미세먼지 수치는 얼마나 좋아지고 있나요?

국제 기준 50㎏/m³ 이상 미세먼지 발생 일수는 2016년 99일, 2017년 90일, 2018년 75일로 조금씩 줄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적은 수치이지만 변화의 가능성에 주목해 보면 어떨까?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전주, 걷기 좋은 맑은 전주를 기대해 본다.



2018년 미세먼지발생일수

## 1인당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얼마나 되나요?

시민 1인당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2016년 150kg, 2017년 154kg, 2018년 152kg으로 집계되어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전주 1인당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최 고 도시라는 불명예를 이어가고 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쓰레기 없는 쾌적한 전주를 함께 만들어 가자

1인당연간 음식물*쓰*레기발생량

**152**<sub>Kg</sub>





# /미니\ 아이들을 위한 아지트 학교놀이터와 생태놀이터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교실이 아이들의 모험 공간으로, 학교에 방치되어 있던 시설이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변신했다. 또, 어둡고 낡은 공원이 아이들을 위한 생태놀이터로 변신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생태놀이터와 학교놀이터를 소개한다.

## 학교 공터의 변신 동북꿈틀존과 인후놀벤저스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 아이들이 언제든 찾아가서 맘껏 쉬고 놀 수 있는 특별한 놀이 공간 이 만들어졌다. 올 9월에 문을 연 전주동북초 '동북꿈틀존 (ZONE)'과 전주인후초 '인후놀벤저스'가 그것이다. 그동안 전주시는 전주덕일초, 중산초, 전주송북초, 전주대성초, 전주완산서초 등에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놀이 공간을 만 들었다.

전주동북초와 인후초 놀이 공간은 설계 때부터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또, 공간의 명칭부터 놀이기구 종류까지, 모두 아이들의 아이디어로 채웠다. 그 결과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던 교실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별한 놀이 공간'으로 변신했다. 전주동북초등학교의 '동북꿈틀존'은 빈 교실 안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오두막과 평상, 모험놀이가 가능한 미로, 친구들과 시합을 즐길 수 있는 줄 올라타기 등으로 꾸며졌다. 전주인후초등학교의 '인후놀벤 저스'는 비가림막을 이용해 학교 건물 공터를 놀이공간으

로 재탄생시켰다. 이곳에서는 움직이는 미로를 탈출하고, 한글 놀이판에 낱말을 맞춰보고, 넓은 오두막에 누워서 쉴 수도 있다.

이제 아이들에게 학교는 더 이상 공부하는 곳만이 아니다. 친구들과 함께 실컷, 맘껏 뛰어놀며 모험심과 협동심, 상 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전주동북초등학교 | 전주시 덕진구 견훤왕궁로 227 전주인후초등학교 |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67







## 흙과 나무로 만든 효림공원 생태놀이터

복잡한 도심 속 마치 비밀의 숲과 같은 놀이터가 있다? 사 방이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도심 한가운데 자연 놀이터 가 들어섰다. 바로 완산구 효자동 효림공원의 생태놀이터 다. 지난 8월, 새롭게 문을 연 효림공원 생태놀이터는 평 소 자연을 많이 접하기 힘든 아이들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놀이터다

효림공원 생태놀이터는 환경부 생태놀이터 공모사업으로, 방치된 공터를 놀이터로 새롭게 조성한 것이다. 지난해 아 중호수 초입에 조성된 호동골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에 이은 전주시의 두 번째 생태놀이터다. 호동골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가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생태공원이라 면, 효림공원 생태놀이터는 주제를 더해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 준다. 그물놀이터를 콘셉트로 다양한 놀이기구를 배치하고, 자연 재료를 활용한 수동 펌프가 있는 체험형 놀이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모험이 있는 그물놀이터를 콘셉트로 한만큼 조합 놀이대를 비롯해 모험 놀이대, 흙 둔덕, 해먹 등 각종 놀이기구가 나 무와 그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자로 잰 듯 반듯반듯 한 모양이 아닌 자연스러운 곡선을 살린 나무 놀이기구도 이곳이 생태놀이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열심히 뛰어놀며 흘린 땀은 공원 입구 파고라에 앉아 식히 면 된다. 그늘 아래서 땀도 식히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 누는 맛은 효림공원 생태놀이터의 또 다른 재미다.

호동골어린이공원과 효림공원에 이은 세 번째 생태놀이터 도 한창 조성 중이다. 금암광장 네거리 인근의 금암체련어 린공원이 생태놀이터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도심 곳곳에서 아이들이 자연과 호흡하며 뛰어노는 놀이터가 더욱 늘어 가기를 희망해 본다

효림공원 생태놀이터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59-4

## 일상 속 활력소,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멀기만 했던 체육센터도 가까워졌다. 평화동 일대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한비탕 국민체육센터가 11월 1일 개관한다. 평화동 2가 321-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한비탕 국민체육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전주시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비영리사단법인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이다.

한바탕 국민체육센터는 신설된 건물답게 쾌적한 실내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이 눈에 띈다. 배드민턴, 배구, 농구 경기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과 당구장, 탁구장 등 주민 문화 공간, 체력단련실과 체력측정실 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췄다. 이곳에서는 전문 지도자의 강습도 이루어지는데 배드민턴, 배구, 농구, 요가, 헬스탁구 등 6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저렴한 강습비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문 스포츠 시설 못지않은 서비스를 갖춘 한비탕 국 민체육센터에서 올기을 운동 삼매경에 빠져 보면 어떨까.

#### 한바탕 국민체육센터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맏내로 99 문의 | 063-221-0915



# 2020년도회기 운영계획

	월별	회 기	회의일수			주 요 안 건	비고
			계획	운영	증감	T # 2 2	미끄
	연간	총 11 회 (정례회2회/임시회9회)	107				
	1월	제366회 임시회	5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설날연휴
		1.17.(금)~1.21.(화)					(1.24~1.27)
	2월	제367회 임시회	8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청취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2.13.(목)~2.20.(목)					
	3월	제368회 임시회	8			• 시정에 대한 질문	
		3.20.(금)~3.27.(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4월	제369회 임시회	8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국회의원선거
		4.20.(월)~4.27.(월)					(4.15)
	5월	제370회 임시회	6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국제영화제
		5.13.(수)~5.18.(월)					(4.30~5.9)
	6월	제371회 제1차정례회	14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의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전주단오제
		6.10.(수)~6.23.(화)					(6.25~6.26)
	7월	제372회 임시회	3			• 제11대 후반기 의장 · 부의장 선거 • 제11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7.7.(화)~7.9.(목)					
		제373회 임시회	8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7.17.(금)~7.24.(금)					
	9월	제374회 임시회	8			• 시정에 대한 질문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9.8.(호)~9.15.(호)					
	10월	제375회 임시회	7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기간 · 방법) 결정	*추석연휴	
		10.14.(수)~10.20.(화)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9.30~10.3)
	11월 ~ 12월	제376회 제2차정례회	32			<ul> <li>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li> <li>시정에 대한 질문</li> <li>2020년도 제2회 추경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의</li> </ul>	
		11.16.(월)~12.17(목)				• 조례안 등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	

※ 매 회기별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과정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편집을마치며



지난해 7월, 첫걸음을 내디딘 전주시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는 '시민을 행복하게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아쉬움이 남는 일도 있었지만, 그 또한 내일이라는 희망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하며, 2020년 의정활동 역시 시민을 최우선으로, 66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편집위원



김현덕



김동헌



김윤철



서윤근



이윤자



##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 전주시의회 2020

## 전주시의회 회보 **제24호**

#### 발간등록번호

**발행인** 전주시의회 의장 박병술

**발행처** 전주시의회\_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편집인** 전주시의회 사무국

Tel. 063.230.3730 Fax.063.230.3657

**디자인/인쇄** 두인기획

www.council.jeonju.go.kr





## **Contents**



04 발간사 전주시의회 의장 박병술

05 축 사 전주시장 김승수

06 History 전주시의회 연혁

07 전주시의회 구성 제11대 전반기

08 전주시의회의원총람 제11대 전반기

10 의정활동 성과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 문화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편집을마치며



지난해 7월, 첫걸음을 내디딘 전주시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는 '시민을 행복하게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시민의 행복과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아쉬움이 남는 일도 있었지만, 그 또한 내일이라는 희망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하며, 2020년 의정활동 역시 시민을 최우선으로, 66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편집위원



김현덕



김동헌



김윤철



서윤근



이윤자

